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라벨, 그림, 재료, 가이드라인, 제조업자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그림, 재료, 가이드라인, 제조업자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6. 24. 브렉시트로 영국 식음료 산업 지각변동 예고	2016. 8. 18. 영국, 비만 퇴치를 위해 식품 라벨 변화해야	2016. 9. 5. 영국 소비자들, 읽기 쉬운 식품 라벨 원한다	2016. 9. 8. 영국, 그림 라벨에 대한 자발적 지침 마련
--	---	--	---

핵심이슈
도출

“영국, 그림 라벨에 대한 자발적 지침 마련”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영국, 그림 라벨에 대한 자발적 지침 마련

2016년 9월 8일, 영국 맛 협회(UK Flavor Association)은 맛과 재료를 나타내는 그림 라벨(pictorial representation)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림 라벨 지침의 목적은 성분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wholly)’, ‘주로(mainly)’와 같은 모호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제품의 맛과 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영국 식음료 연맹(Food and Drink Federation)의 수석 과학 책임자 헬렌 먼데이(Helen Munday)는 “맛과 재료는 식품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들이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제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지침 마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소비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영국의 자발적 라벨 정책은 유럽연합 국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초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은 제품에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식화된 그림 라벨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영국은 이러한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 소비자들의 이해를 고려한 라벨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영국 맛 협회는 그림 라벨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공개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침을 마련하여 식품 라벨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이후, 유럽연합과는 다른 독자적인 식품 규제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그림 라벨에 대한 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지침으로, 아직은 자발적인 시행 단계이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유럽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영국의 식품산업 규제가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되면서, 영국으로의 수출 시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영국의 자체적인 식품 라벨 규정의 검토를 통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